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GALLUP KOREA DAILY OPINION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 - 문화
매주 새로운 Opinion Index를 제공합니다.

부자에 대한 인식 조사 | 2014년 3월 24~27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 • 존경할 만한 부자가 더 많은가 • 우리나라의 존경할 만한 부자
기존 부자들의 부 축적 방법에 대한 인식 •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 보통 사람과 부자의 행복 • 본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

2014년 3월 24~27일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1,199명 • 표본오차 ±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8,036명 중 1,199명 응답 완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를 기본 표본 프레임으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집전화 RDD 조사를 병행하며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한국갤럽 유무선 RDD 혼합조사설계, 선거여론조사 관련 연구논문**

한국갤럽은 2010년 이후 유선전화(일반 집전화)와 무선전화(휴대전화) RDD 조사 과정과 결과를 수차례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2013년 11월 조사연구 14권 3호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실시한 데일리정치지표조사와 18대 대선 예측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무선RDD 조사의 타당성 검토> 연구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모바일기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PC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찾아주십시오.)

→ 무선RDD 전화조사의 타당성 검토 연구(조사연구 2013.11 14권 3호)
→ 선거시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언론중재 2012 여름호 특집논문)
→ 유무선 RDD를 결합한 혼합조사설계: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사례 연구

조사역사 40년
Gallup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설립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4년 문을 연 저희 연구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0년간 깊은 명성은 저희 조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자체 기획, 운영하는 정치 지표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제공해 왔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정치,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한민국 대표 오피니언 인덱스로 한 단계 더 흥미로운 자료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 하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갤럽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 받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대표하여 박 무 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 71%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의 특징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를 연중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개합니다.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필요하신 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조사 방법 / 지표 산출 방법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200명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표본오차 / 해석 시 주의사항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일일 지표의 표본크기는 약 900명, 주간 지표의 표본크기는 약 1,200명입니다.
유효 표본크기 9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3.3%포인트, 1,200명일 때 ±2.8%포인트입니다.
표본오차 이외에도 불완전한 표본추출틀, 응답 거절, 질문에 대한 혼동 등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이런 요인을 배제하고 비교적 완전한 표본추출틀에서 확률추출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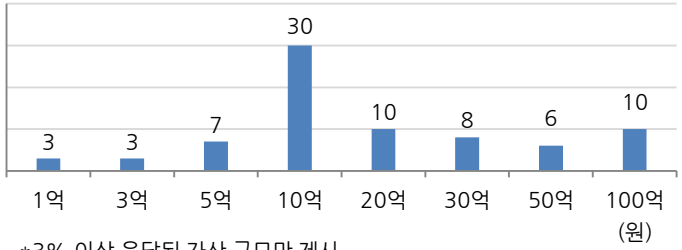
※ 2012년에는 매주 1,5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나, 2013년부터는 매주 1,2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주 금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합니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

질문) 귀하 주위를 볼 때 **몇 억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응답)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 (단위: %)								평균 (억)
			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1백억 미만	1백억대	1천억대	의견유보	
전체		1,199	7	8	31	19	7	10	1	18	25
지역별	서울	247	4	5	32	27	8	10	1	13	26
	인천/경기	345	6	8	31	24	7	9	0	15	24
	강원	37	-	-	-	-	-	-	-	-	-
	대전/세종/충청	122	7	10	30	10	6	11	1	24	27
	광주/전라	122	10	9	33	9	7	5	1	25	19
	대구/경북	123	6	4	29	17	7	13	2	22	31
	부산/울산/경남	190	9	9	31	16	5	11	1	19	25
	제주	13	-	-	-	-	-	-	-	-	-
성별	남성	594	6	8	33	21	6	11	1	15	26
	여성	605	8	8	29	17	7	9	1	21	24
연령별	19-29세	212	6	8	32	14	7	16	2	14	32
	30대	239	6	6	32	20	9	16	1	11	33
	40대	258	6	7	30	28	7	7	1	15	22
	50대	236	6	11	33	19	6	8	0	17	21
	60세 이상	254	9	7	29	14	3	4	1	33	17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	-	-	-	-	-
	자영업	175	5	8	39	20	4	6	1	17	19
	블루칼라	144	10	11	25	20	5	9	2	18	23
	화이트칼라	350	5	7	33	23	10	11	1	10	28
	가정주부	284	7	7	32	17	6	8	0	23	21
	학생	109	5	5	30	16	3	18	2	21	36
	무직/은퇴/기타	97	11	8	23	17	7	10	2	22	28
생활 수준별	상/중상	136	3	8	22	28	10	13	3	13	32
	중	431	6	7	33	22	7	11	0	14	25
	중하	340	5	9	34	19	7	11	0	16	25
	하	275	12	7	30	12	4	7	3	26	21
이념 성향별	보수적	350	8	7	32	21	5	9	1	16	23
	중도적	383	7	8	31	20	8	9	1	14	25
	진보적	306	5	9	31	19	7	15	1	12	31
	모름/응답거절	161	6	4	27	14	3	3	0	42	16

◎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 (단위: %)



*3% 이상 응답된 자산 규모만 제시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1억 3%, 3억 3%, 5억 7%, 10억 30%, 20억 10%, 30억 8%, 50억 6%, 100억 10% 응답

*위에 제시한 평균은 상하위 5% 절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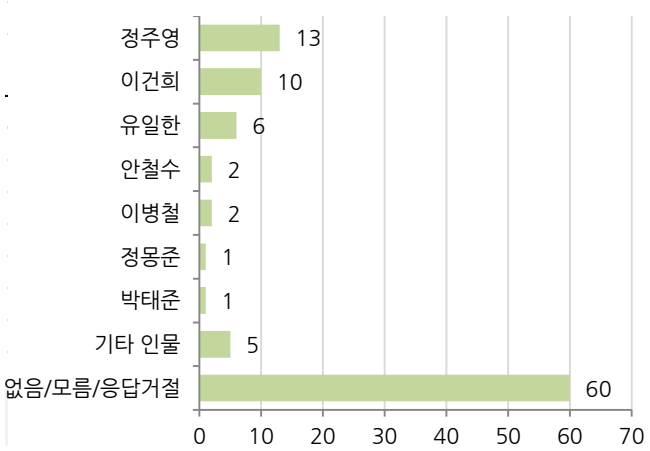
존경할 만한 부자가 더 많은가 · 우리나라의 존경할 만한 부자

질문) 귀하께서 알고 있는 **부자들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부자들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그렇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199**	**19%**	**66%**	**15%**
지역별	서울	247	21%	69%	11%
	인천/경기	345	21%	64%	16%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2	21%	66%	14%
	광주/전라	122	22%	57%	20%
	대구/경북	123	17%	70%	12%
	부산/울산/경남	190	15%	69%	16%
	제주	13	-	-	-
성별	남성	594	22%	61%	16%
	여성	605	16%	71%	14%
연령별	19-29세	212	27%	63%	10%
	30대	239	17%	72%	12%
	40대	258	15%	71%	14%
	50대	236	18%	70%	12%
	60세 이상	254	20%	55%	25%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자영업	175	22%	70%	8%
	블루칼라	144	15%	67%	18%
	화이트칼라	350	18%	69%	12%
	가정주부	284	14%	70%	16%
	학생	109	33%	55%	12%
	무직/기타	97	20%	55%	25%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30%	61%	9%
	중	431	24%	63%	13%
	중하	340	14%	74%	12%
	하	275	13%	67%	20%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24%	61%	15%
	중도적	383	19%	68%	13%
	진보적	306	18%	70%	12%
	모름/응답거절	161	12%	64%	24%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질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응답, 단위: %)



*0.5% 미만으로 응답된 사람은 모두 기타 인물에 포함

기존 부자들의 부 축적 방법에 대한 인식 ·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질문) 현재 우리나라 부자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이나 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우리나라 부자들의 부 축적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	노력/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199**	**63%**	**23%**	**14%**
지역별	서울	247	63%	22%	15%
	인천/경기	345	61%	24%	15%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2	72%	13%	15%
	광주/전라	122	62%	23%	15%
	대구/경북	123	62%	27%	11%
	부산/울산/경남	190	61%	27%	13%
	제주	13	-	-	-
성별	남성	594	61%	25%	14%
	여성	605	65%	21%	14%
연령별	19-29세	212	59%	29%	12%
	30대	239	65%	23%	12%
	40대	258	67%	16%	17%
	50대	236	65%	21%	13%
	60세 이상	254	57%	27%	17%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자영업	175	69%	18%	14%
	블루칼라	144	68%	18%	14%
	화이트칼라	350	63%	24%	14%
	가정주부	284	65%	21%	14%
	학생	109	49%	37%	14%
	무직/기타	97	56%	27%	18%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61%	28%	11%
	중	431	59%	28%	13%
	중하	340	64%	20%	16%
	하	275	69%	16%	15%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55%	30%	14%
	중도적	383	61%	24%	15%
	진보적	306	74%	17%	9%
	모름/응답거절	161	62%	16%	22%
부자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229	45%	43%	12%
	그렇지 않다	791	72%	17%	11%
	모름/응답거절	178	42%	27%	31%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질문)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더 중요하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199**	**40%**	**53%**	**7%**
지역별	서울	247	35%	59%	6%
	인천/경기	345	39%	53%	8%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2	46%	47%	7%
	광주/전라	122	42%	53%	6%
	대구/경북	123	42%	53%	5%
	부산/울산/경남	190	43%	49%	8%
	제주	13	-	-	-
성별	남성	594	42%	50%	8%
	여성	605	38%	56%	6%
연령별	19-29세	212	31%	59%	10%
	30대	239	22%	74%	5%
	40대	258	29%	62%	9%
	50대	236	44%	50%	6%
	60세 이상	254	71%	23%	6%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자영업	175	43%	52%	5%
	블루칼라	144	36%	56%	8%
	화이트칼라	350	28%	66%	6%
	가정주부	284	47%	47%	6%
	학생	109	35%	53%	13%
	무직/기타	97	63%	31%	6%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36%	57%	8%
	중	431	41%	52%	7%
	중하	340	33%	60%	6%
	하	275	46%	47%	6%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47%	47%	5%
	중도적	383	37%	56%	7%
	진보적	306	29%	64%	7%
	모름/응답거절	161	50%	38%	12%
부자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229	53%	41%	7%
	그렇지 않다	791	35%	59%	6%
	모름/응답거절	178	47%	43%	11%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보통 사람과 부자의 행복 · 본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

질문) 귀하는 부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부자는 보통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더 불행하다	비슷하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199	24%	18%	47%	11%
지역별	서울	247	24%	17%	48%	11%
	인천/경기	345	20%	14%	54%	12%
	강원	37	-	-	-	-
	대전/세종/충청	122	24%	19%	47%	10%
	광주/전라	122	24%	20%	40%	15%
	대구/경북	123	28%	22%	39%	11%
	부산/울산/경남	190	25%	18%	48%	10%
	제주	13	-	-	-	-
성별	남성	594	26%	17%	45%	12%
	여성	605	22%	19%	49%	10%
연령별	19-29세	212	19%	15%	58%	8%
	30대	239	25%	14%	48%	14%
	40대	258	23%	13%	54%	10%
	50대	236	26%	20%	42%	12%
	60세 이상	254	27%	26%	35%	12%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
	자영업	175	25%	19%	39%	17%
	블루칼라	144	25%	18%	48%	9%
	화이트칼라	350	23%	14%	53%	11%
	가정주부	284	23%	21%	46%	11%
	학생	109	19%	15%	58%	8%
	무직/기타	97	32%	23%	33%	12%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30%	12%	50%	8%
	중	431	23%	16%	52%	9%
	중하	340	21%	18%	47%	14%
	하	275	28%	22%	38%	12%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25%	21%	43%	12%
	중도적	383	23%	13%	54%	10%
	진보적	306	24%	20%	47%	9%
	모름/응답거절	161	25%	18%	39%	18%
부자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229	28%	16%	45%	11%
	그렇지 않다	791	22%	19%	49%	10%
	모름/응답거절	178	25%	14%	43%	17%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질문) 귀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본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가능성 있다 (계)	전혀+별로 없다 (계)	모름/ 응답거절
전체		1,199	7%	25%	33%	61%	6%
지역별	서울	247	9%	29%	37%	57%	6%
	인천/경기	345	10%	29%	39%	56%	4%
	강원	37	-	-	-	-	-
	대전/세종/충청	122	6%	23%	29%	64%	7%
	광주/전라	122	4%	23%	27%	67%	6%
	대구/경북	123	8%	25%	32%	62%	6%
	부산/울산/경남	190	5%	20%	25%	65%	10%
	제주	13	-	-	-	-	-
성별	남성	594	10%	25%	36%	59%	6%
	여성	605	5%	25%	30%	64%	7%
연령별	19-29세	212	15%	38%	52%	44%	4%
	30대	239	9%	27%	36%	60%	3%
	40대	258	7%	31%	38%	57%	5%
	50대	236	6%	22%	28%	64%	8%
	60세 이상	254	1%	11%	12%	78%	10%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	-
	자영업	175	11%	28%	39%	55%	6%
	블루칼라	144	6%	24%	30%	64%	6%
	화이트칼라	350	9%	32%	41%	56%	3%
	가정주부	284	2%	17%	19%	73%	8%
	학생	109	16%	38%	53%	40%	6%
	무직/은퇴/기타	97	4%	16%	20%	73%	8%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16%	45%	61%	32%	7%
	중	431	9%	35%	43%	51%	6%
	중하	340	4%	19%	24%	71%	6%
	하	275	5%	10%	14%	80%	5%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6%	24%	30%	65%	5%
	중도적	383	8%	32%	40%	56%	5%
	진보적	306	9%	24%	33%	61%	6%
	모름/응답거절	161	6%	15%	22%	66%	13%
부자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229	15%	34%	49%	46%	5%
	그렇지 않다	791	6%	25%	31%	64%	5%
	모름/응답거절	178	4%	18%	22%	67%	11%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지역/성/지지정당/직업/생활수준과 연령 분포 구성입니다. 2013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8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질문) 귀하는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질문)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질문)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읽음: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중도적,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2014년 3월 24~27일		표본수 (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전체 구성비
전체		1,199	±2.8%P	100%
지역별	서울	247	±6.2%P	21%
	인천/경기	345	±5.3%P	29%
	강원	37	±16.1%P	3%
	대전/세종/충청	122	±8.9%P	10%
	광주/전라	122	±8.9%P	10%
	대구/경북	123	±8.8%P	10%
	부산/울산/경남	190	±7.1%P	16%
	제주	13	±27.2%P	1%
성별	남성	594	±4.0%P	50%
	여성	605	±4.0%P	50%
연령별	19-29세	212	±6.7%P	18%
	30대	239	±6.3%P	20%
	40대	258	±6.1%P	22%
	50대	236	±6.4%P	20%
	60세 이상	254	±6.1%P	21%
직업별	농/임/어업	40	±15.5%P	3%
	자영업	175	±7.4%P	15%
	블루칼라	144	±8.2%P	12%
	화이트칼라	350	±5.2%P	29%
	가정주부	284	±5.8%P	24%
	학생	109	±9.4%P	9%
	무직/은퇴/기타	97	±10.0%P	8%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8.4%P	11%
	중	431	±4.7%P	36%
	중하	340	±5.3%P	28%
	하	275	±5.9%P	23%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5.2%P	29%
	중도적	383	±5.0%P	32%
	진보적	306	±5.6%P	26%
	모름/응답거절	161	±7.7%P	13%

2014년 3월 4주		표본수 (명)	연령 분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전체		1,199	18%	20%	22%	20%	21%
지역별	서울	247	19%	21%	21%	19%	20%
	인천/경기	345	18%	22%	24%	19%	17%
	강원	37	-	-	-	-	-
	대전/세종/충청	122	18%	20%	21%	19%	23%
	광주/전라	122	17%	18%	21%	19%	26%
	대구/경북	123	17%	18%	21%	20%	24%
	부산/울산/경남	190	17%	19%	21%	21%	22%
	제주	13	-	-	-	-	-
성별	남성	594	19%	21%	22%	20%	19%
	여성	605	17%	19%	21%	20%	24%
직업별	농/임/어업	40	-	-	-	-	-
	자영업	175	2%	18%	32%	34%	14%
	블루칼라	144	12%	20%	27%	29%	13%
	화이트칼라	350	20%	38%	26%	13%	3%
	가정주부	284	0%	15%	23%	24%	38%
	학생	109	99%	0%	1%	0%	0%
	무직/은퇴/기타	97	10%	3%	6%	9%	71%
생활수준별	상/중상	136	32%	24%	19%	17%	9%
	중	431	22%	25%	21%	16%	16%
	중하	340	16%	19%	24%	24%	18%
	하	275	7%	12%	21%	23%	37%
이념성향별	보수적	350	11%	14%	20%	25%	30%
	중도적	383	21%	22%	21%	20%	16%
	진보적	306	20%	25%	28%	16%	10%
	모름/응답거절	161	19%	17%	15%	15%	34%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기억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주 4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무선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한국갤럽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200명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한국갤럽 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